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예산안	2000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5,899	21,073	4,826	22.9
여성 발전 센터 운영	소 계	515	811	△296
	남 부	195	151	44
	중 부	159	127	32
	북 부	161	149	12
	서 부	0	384	△384
국 고 보 조 금	25,384	20,262	5,122	25.3

○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8억 9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8억 2천 6백만원(22.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용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장 수입인 여성발전센터 수입은 서부여성발전센터 세입을 위탁비에 상계처리함에 따라 금년대비 2억 9천 6백만원(△36.4%)이 감액된 5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제외한 3개 여성발전센터의 수입은 약간씩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51억 2천 2백만원(25.3%)이 증가된 253억 8천 4백만원으로 주요증액 사업내역으로는 보육시설운영지원에 21억 8천 3백만원, 선도·미혼모보호시설지원확대에 2억 2천 2백만원,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에 10억 5천 8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에 15억 7천 7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7억 8천 9백만원이 각각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세입의 98%가 국고보조금이므로 세입추계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16page 참조) 금년도 대비 162억 2천 3백만원(16.0%)이 증액된 1,176억 4천 5백만원임. 이는 국고보조사업비가

253억 8천 4백만원으로 올해보다 25.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18.9%에 비해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여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분야별로 보면(16page)

- 여성정책분야관련 예산은 금년도보다 64억 6천 3백만원(25.9%)이 크게 증가한 314억 3천 9백만원이고
- 유아복지사업관련 예산은 금년대비 50억 8천 2백만원(10.9%)이 증가된 516억 8천 만원이며
- 아동복지분야는 금년대비 38억 3천 6백만원(16.8%)이 증가한 266억 9백만원이고
- 여성발전센터운영비는 10억 5백만원(24.8%)이 증가된 50억 6천 2백만원이며
- 시립아동상담소운영비는 3천 9백만원(2.5%)이 증가한 15억 7천 5백만원인 반면
- 시립부녀보호소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의 인건비과다 계상분을 조정하여 2억 여 원(△13.6%)이 감소한 12억 8천 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 신규사업(17page)으로 여성재단설립비 1억 7천만원, 늘푸른여성정보센터운영비 4

<p>역원, 여자청소년 선도보호시설의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금비 1억 2천만원, 장애아 통합보육사업비 7억 8천3백만원, 지역사회공부방지원비 2억 6백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p> <p>-주요증액사업(17page)으로는 여성발전센터운영비 6억 6천1백만원, 서울여성플라자건립비 44억 6백만원, 동부여성발전센터건립비 12억 1천4백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 50억 1천9백만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비 1억 1천5백만원, 선도·미혼모보호시설지원비 2억 4천3백만원, 저소득부 모자과정지원비 6억 1천4백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3억 6천6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비 27억 8천5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 9억 1천2백만원이 금년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p> <p>-반면에 영아, 24시간프로그램 확대사업 6억 1천 4백만원, 부랑여성보호시설운영 및 기능보강비 1억 2천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비 4억 5천7백만원은 오히려 감소됨.</p> <p>※신규 주요사업 증액·감액·국비보조 사업 현황 별첨참조</p> <p>3) 장애아통합보육 사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이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아들의 조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구비 각 50%씩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선 각 구별 1개소씩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등 7억 8천3백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 이 사업은 취학 전 장애아와 부모가족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일반아동들이 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계기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기는 하나 시범운영 보육시설의 선정이나 향후 추가확 	<p>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별 장애아동의 분포나 보육시설 현황 등을 참조하여 실질적인 장애아동의 초기 보육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망됩니다.</p> <p>4) 서울여성플라자건립과 여성재단 설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성의 문화공간과 사회참여 활동의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22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준공 개원에 대비하여 여성플라자의 운영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의 차질 없는 개원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형태와 주요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결정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운영형태를 시직영, 재단법인설립, 민간위탁 등을 두고 검토중이며 연구용역도 시행 할 계획이나 아직 운영형태에 대한 확정적 결정 없이 재단법인설립을 전제로한 법인등기 비용과 발기인총회 수용비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법인설립을 예상한 소요예산을 반영시켜 두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집행부의 확실한 내부의사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가상한 예산편성이 다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지며, 재단법인설립운영이 기정사실화 된다 하더라도 등기비용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시직영, 민간위탁, 재단법인설립 중 운영형태가 확정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비용을 포함적으로 계상하든지, 아니면 목적성 예비비로 계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p>5) 늘푸른 여성정보센터 사업변경 관련</p>
---	---

○ 사업계획 변경 개요

(단위 : 백만원)

규 모	당 초	변 경
소재지	구 한마음 노숙자쉼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592-2	현 가정상담소 마포구 서교동 398-15
사업내용	시설개·보수, 물품·장비구입 (청소 경비 등 시설 용역)	시설개·보수, 물품·장비구입 프로그램 운영(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구축 외 7종)
소요예산	400	400
시 설 비	255	169
자 산 및 물품취득비	50	46
민 간 위 탁 금	95	20
일 반 운 영 비	-	145
일 시 사 역 인 부 입	-	20

○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숙자보호시설인 한마음쉼터의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동 건물을 매입·개·보수하여 가출, 성매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들에게 임시보호와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요보호여성종합정보센터로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건물매입, 개·보수비 중 시설 개·보수비, 물품·장비구입 등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동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건물주와의 의견차로 건물매입이 어려워 사업계

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 늘 푸른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요보호여성에게 24시간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일시보호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업변경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충실히 운영되겠지와 관련예산인 일반운영비에 대한 축소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지원 관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01예산안	2000예산	증감	산 출 내 역
민간이전	(× 222,232) 453,145	(× 179,595) 367,869	(× 42,637) 85,276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5개소) 169,286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5개소) 283,859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여성에

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에 각종 여성장애인에 대한

38 (第19回-保健社會第1次)

<p>성폭력 사건이 빈번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상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7) 지역사회 공부방 운영지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나 종교단체 등이 주로 저소득 층 밀집지역 등에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를 해오고 있는 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소당 월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부방은 43개 시설에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43개 시설에 대하여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데 필요한 2억 6백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외학습에 대한 지나친 공공부문의 개입은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면 공부방 시설규모 	<p>와 학생수가 시설별로 다양하므로, 이를 감안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p> <p>8) 국비 지원사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을 요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설 내에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시립소년의 집」의 경우에 강당·숙소건물 재건축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10억 2천2백만원을 요구하여 여성정책관에서 재건축공사비 6억 9천1백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신청하였으나, 국비지원을 확보 못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시립시설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을 확보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2. 여성발전기금</p>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01	2000	증감	구 분	2001	2000	증감
계	12,120	12,115	5	계	12,120	12,115	△ 5
적립금이자	872	904	△ 32	사업비	800	857	△ 57
전년도이월금	11,248	11,211	37	기금적립금	11,310	11,248	62
				기금관리비	10	10	-

- 여성발전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가된 121억 2천만원 규모로 이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년도 여성발전기금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정보화촉진 10개 사업, 남녀평등촉진사업 5개 사업, 여성사회참여활성화 13개 사업, 여성복지증진사업 5개 사업, 기타시정참여사업 4개 사업과 시·지정사업 3개 사업 등 총 34개 단체 44개 사업에 6억 4천4백만원을 지출하여 1개

- 사업당 평균 약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내년도 사업비는 8억원으로 금년대비 5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적립금이자 수입이 다소 축소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91.7% 수준에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비 축소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소모적 일회성사업은 가급적 지양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